'소나무를 찾아 떠나는 테마여행"

1. 기획 목적

○ 속리산을 대표하는 나무인 소나무에 대해 알아 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나무 중 하나인 정이품송과 관련된 속리산 유래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속리산만의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원관리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방법

○ 대 상 자 : 어린이
○ 계　　절 : 봄
○ 운영코스 : 정이품송 앞~ 은구석공원
○ 소요시간 : 1시간
○ 참가인원 : 20명 내외
○ 준비물
- 해설자 : 해설 소품(청진기), 구급약
○ 운영주체 : 직원, 자연환경안내원

3. 시나리오 구성요소

○ 구연동화식의 접근성
○ 알기쉽고 퀴즈식의 호기심 유발
○ 시나리오를 통한 체험의 극대화
○ 기념사진을 통한 국립공원과의 유대감과 추억만들어주기

시나리오

1. 만남과 인사하기(속리산국립공원안내도 앞)

안녕하세요?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솔향기 가득한 국립공원 속리산 을 찾아오신 어린이 여러분~ 진심으로 방갑습니다.
저는 '소나무를 찾아 떠나는 테마여행 '이란 제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속리산국립공원 자연환경안내원 ○○○입니다.
영어로는 에코가이드라는 명칭을 사용한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코가이드~"

네,영어를 너무나도 잘하는군요~(웃음)

오늘,여러분들과 함께 소나무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과 체험들을 통해
속리산 국립공원에서의 또 다른 공부와 재미있는 체험놀이들을 통해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흔히 소나무를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우리나무 라고들 말하지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어린이 여러분들 모두 알고계시군요~
맞아요,어느 해에 산림청에서 산림에 대한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은 소나무를 제일 좋아하고 2위가 은행나무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남한 숲의 약 42%을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는 우리나라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랍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서도 소나무가 나올정도니 참 소중한 나무지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솔가지를 끼워 대문에 금줄을 달았고, 소나무로 집을 지어 살면서, 생활용품과 땔감으로 썼으며, 솔잎으론 송편을 찌고, 먹거리나 약으로 쓰며 살다가 죽으면 소나무로 만든 관에 넣었으며 솔숲 근처에 묻혔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솔과 함께 태어나 솔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솔과 함께 일생을 마감했다 하리만큼 소나무와 운명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우리 민족의 나무라 부릅니다.
자~~그럼 우리 민족의 나무인 소나무를 찾아 함께 여행을 떠나 볼까요?

2. 정이품송의 유래를 알아보아요.

어린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속리산을 대표하는 나무는 우리 소나무인 정이품송 이랍니다. 정이품송 은 조선 7대 임금인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후 죽이고자 결심하게 된 어느 날 밤, 꿈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네가 내 아들을 죽이려 하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 ' 며 침을 뱉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침을 뱉은 자리가 곪기 시작하고 온몸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백약을 써 보았지만 소용없자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쳐보고자 명산대찰을 찾아 이 곳 속리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데, 그때 연(가마)이 걸리지 않도록 소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 주어서 무사히 이곳을 통과했고 법주사와 복천암 등에서 사흘밤낮을 국운번창을 기원하는 법회와 불공을 드린 결과 피부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또한 돌아가는 길엔 이 소나무 아래에서 큰비를 피했다고 하며 기특한 나무라 하여 정이품 이란 벼슬을 내려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이런 연유로 연걸이소나무(연송)이라고도 불렸답니다.정말로 정이품송은 대단한 소나무죠?

그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소나무로 옛날엔 어떤 쓰임새로 우리들 곁에서 사용되었을까요?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네 ,맞아요~

옛날엔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때 소나무 아래에서 태교를 하고 맛있는 장 담글 때 금줄에 숯, 고추, 백지, 솔가지 등을 끼워 넣었고 집을 지을 때 기둥이나 서까래용으로 썼답니다.
나무가 단단하고 잘 썩지 않아 벌레가 생기거나 갈라지지 않아 경복궁과 같은 궁궐이나 큰 절을 지을 때 썼던 소나무, 그러나 요즘은 궁궐이나 큰 절을 보수할 때 크고 질 좋은 소나무를 구할 수 없어 무척 안타깝답니다.
소나무로도 참 많은 일들을 했지요,

우리나라 숲의 대표적인 소나무로는 적송과 리기다소나무 그리고 잣나무 등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잎이 2개씩, 리기다소나무는 3개씩, 잣나무는 5개씩 모여 나오는 것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답니다. 적송의 경우 수피가 붉은 색을 띠고, 리기다소나무는 수피에 맹아가 많은 것이 특징이래요.
흔히 우리가 보는 소나무는 줄기가 곧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다 구부러진 것은 아닙니다. 경북 봉화, 울진, 삼척등지에서 자란 소나무는 쭉쭉 곧게 뻗으며 굵게 자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질이 좋은 소나무 목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일본사람들이 우수한 소나무들은 벌채해 일본으로 모조리 가져갔기 때문에 대부분 구부러진 소나무만이 우리 숲에 남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3.청진기로 새 봄을 맞이하기 체험-나무에서도 소리가 난다

준비물 : 청진기

놀이 방법
①은구석공원에서 조용한 곳을 택한다.
②소리를 잘 듣기 위해 단풍나무같이 껍질이 얇은 나무를 선택한다.
③준비한 청진기로 나무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어린이의 심장 소리를 듣는다.
④나무의 소리를 들어본다. 약 10초 동안 집중하면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⑤소리를 듣고 난 뒤 자기의 심장 박동 소리와 나무에서 나는 물소리의 차이점을 함께 이야기해 본다.

우리가 사는 온대 지역 나무들은 대략 4~6월에 땅에서 물을 강렬하게 빨아올린답니다.

특히 햇빛이 많은 오전 11시부터 낮 1시 사이에 숲에 가서 나무에 청진기를 대보면 수액이 활발하게 이동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어린이 여러분들도 한번 집근처에서 들어볼수 있답니다. 이런 소리는 줄기뿐 아니라 나뭇잎이나 가지에서도 들을 수 있으니 신기하죠?

물은 나무의 뿌리에서 가장 위쪽 잎까지 어떻게 이동하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보다 더 좋은 체험을 간직한채 우리 봄이 오는 소리를 잊지마세요~

산철쭉

우선 이 관찰로를 거닐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산철쭉에 대해 이야기해볼께요~

산지의 물가에서 자라며,높이는 1 2m이고,잎은 3 8cm의 긴 타원 모양에 잎 뒷면 맥 위에는 잎자루와 더불어 갈색 털이 빽빽이 있답니다.한번 직접 보세요,
참 이쁘지요?

지금 꽃은 4 5월에 붉은빛이 강한 연한 자주색으로 피고 가지 끝에 2 3개씩 달린것을 보실 수있죠? 화관은 지름 5 6cm의 깔때기 모양이고 5개로 갈라지며 안쪽 윗부분에 짙은 자주색의 반점이 있답니다.수술은 10개이고 꽃밥은 자줏빛이랍니다.

참 이쁜 꽃이죠?

자 이렇게 좋은 자연속의 관찰들을 하면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가져봅시다.

조팝나무

자 지금 보시는 나무가 조팝나무랍니다.
참 이쁘지요?
좁쌀을 튀겨놓것같은 꽃잎들덕분에 조밥나무에서 조팝나무라고 이름이 지어졌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그냥 팝콘같아요~
이 조팝나무는 꿀벌들이 즐겨 찾는 밀원식물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산기슭에서 키작은 나무로 자라며,향기도 향기롭답니다.
촘촘히 붙는 꽃차례는 꽃자루가 없으며,4~6개정도 흰색 꽃이 피고 작은꽃자루는 길이 1cm 정도로 털이 없답니다.
꽃받침 조각은 털이 있으며, 5장의 둥근 꽃잎은 수평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보여서 보이니 참 아름답지요

때죽나무

꽃이나 열매가 모두 이름과 잘 어울리는 때죽나무!! 그런데 왜 때죽나무라고 했을까요?
혹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어떻해 생각하는지 한번 발표해볼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한번 때죽나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가을에 수백 수천 개의 열매가 조랑조랑 매달려있는 모양이 마치 스님들이 떼로 몰려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떼중나무로 불리다가 때죽나무로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열매나 잎에는 고기나 동물을 마취하는 에고사포닌 이란 성분이 들어있어 이것을 찧어서 물에 풀면 고기가 떼로 죽는다고 하여 때죽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5월 중순쯤 피는 새하얀 꽃은 다소곳이 땅을 향해 피는 데 마치 작은 종 모양으로 앙증맞고 귀엽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스노우벨(Snowbell)이라고 부릅니다.

무슨벨이라구요?

네 맞아요,스노우벨~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역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참 영어를 잘하는군요~

열매에는 기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예전에 등잔불을 켜거나 동백기름 대용으로 썼다고 하네요. 또한 때죽나무는 공해에도 잘 견딘다고 하니 공기가 텁텁한 도시에서
때죽나무 가로수 길을 조성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게 생각되지요?

네,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아쉽게 마무리해야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소나무와 여러 야생화를 체험하면서 무척 즐거운 시간들이였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밝게 웃으며 속리산국립공원에서 보낸 시간들을 기억해주세요.
그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우리 그 기념으로 추억들을 간진한채 또 만나요~~~